광주시의회 전체 의원(사진 위)과 전남대 교수 20여명이 2일 시의회 브리핑룸과 전남대 역사관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나명주·김진수기자 mjna@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라"

전남대·조선대 교수, 광주시의원·5월단체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각계로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의원 26명은 2일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국기문란행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의원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은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를 흘려 정치에 개입하고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작으로 선거에 직접 개입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할 최고 정보기관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규탄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재발방지 방안 제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엄중 처벌 ▲정부와 여당은 국회 국정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 마련·제시 등을 촉구했다.

조선대 교수 25명은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선거 원칙을 깬 헌정 파괴행위임에 따라 지난 대선은 원천무효 부정선거이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퇴진과 함께 거취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은 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대선 무효를 선언하고 강력한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대학교 교수 20여 명도 이날 오전 전남대 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공공연한 정치개입과 탈법행위는 1987년 이후 안정화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정원은 최근에 행한 일련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수사와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남대 교수 141명이 참여했으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함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목포대 교수 48명도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사철, 공작정치를 영구히 차단할 수 있는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지는 자세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공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안보특강을 개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폄하한 소위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회원을 초청했다"며 "최근 5·18 왜곡 폄하가 기승을 부리는 근본적인 원인과 배후가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넌 빠져" 새누리 시작하자마자 퇴장

"우리가 고발했으니 제척"

국정원 국조 특위 파행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특위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었지만 특위위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시작하자마자 정회 됐다.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 위원이 있는 이상 회의를 시작할 수 없다"며 퇴장한 것이다. 새누리당 측은 민주당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됐기 때문에 특위위원으로서 제척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이니 위원장을 선임하고 양측의 입장을 듣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측은 완강했다. 김태흠 의원은 "제척 사유가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회의를 시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장우 의원도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위원장 선임도 나중에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럼에도, 신 의원은 "성원이 됐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겠다"며 개회를 선언했지만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줄지어 퇴장했다.

하는 수 없이 신 의원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협의에 들어갔다.

1시간여 정회 된 끝에 회의는 가까스로 속개돼 국조계획서 채택과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선임 등 안건 처리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는 곧바로 특위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두고 또 한 번 설전을 벌였다.

먼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김현, 진선미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동료 의원 앞에서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고소고발 당했다고 다 피의자가 되느냐. 조사범위별로 구분해 적절히 조화시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속도 내는 한·중 FTA 타들어가는 전남 農心

전국 농민 2만여명 부산 벡스코 앞 시위 ··· 전남농민 800여명 참여

"국내피해 15년간 29조"

전남도, 대응담당 신설 종합적 대책 마련 착수

최근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덩달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자 전남지역 농민들이 농축산업 보호대책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전남도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단계 협상 마무리 단계=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중 FTA 제6차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6월 말 양국 정상이 만나 FTA 체결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열리는 것으로 1단계 협상 타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일정은 4일까지 열리는 이번 6차 회의에서 모델리티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뒤 8~9월께 중국에서 진행될 7차 회의에서 조문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국은 5월 시작된 1단계 협상에서 상품 자율화율(전체 교역 품목 중 관세 철폐 품목 비율), 민감·초민감·일반 품목의 비중 및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협상의 기본 지침이 마련되면 2단계로 품목별 관세 철폐 등을 놓고 양허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은 국내 농수산 분야, 의류, 운송장비 등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은 자동차, 섬유, 화학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수축산물 피해 15년간 29조"=지역 농민회를 중심으로 국내 농축수산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전남지역 농민 800여명이 실무협상 행사장인 부산으로 이동해 한·중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주최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이들은 이날 18개 지역에서 버스에 나눠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위에는 전국 농민 2만여명이 참가해 벡스코 앞에서 해운대역 광장까지 2.9㎞ 구간에서 거리행진을 하며 "중국의 농수축산물 대부분은 한국보다 절대적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어 한중FTA가 타결되면 농어업 생산활동의 위축과 농어촌 경제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농수축산물 피해액이 15년간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공약 가계부 발표에 따른 농업예산 삭감 시도 철회, 쌀 목표가격 인상, 사료가격 안정화를 통한 축산농가 보호대책 마련 등 농축산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도 대책 마련 고심=전남도는 한·중 FTA가 타결되면 농축수산업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철강, 섬유 분야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분야별로 FTA 대응담당과 대책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분야별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박준영 지사는 조만간 통상교섭본부장을 직접 만나 한·중 FTA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농수축산물을 양허에서 제외하고, 농수산물가공공장 건립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피해 분야와 피해 금액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크지만 전남의 근간인 농축수산업을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무안 – 심양전세기 [7/26~9/30 매주 월,수,금]
심양 / 백두산[서파] 5일[월]
일급 1,090,000 특급 1,190,000 불포함 : 유류세(₩86,000), 기사&가이드 팁
심양/백두산[서파/북파] 6일[수/금]
일급 1,190,000 특급 1,290,000 불포함 : 유류세(₩86,000), 기사&가이드 팁
무안공항에서 동방항공으로 떠나는 상해/구채구 6일
ALL포함 1,299,000

가족 ,친구 ,연인과함께 히타고급 별장으로 GO, GO 규슈 !! 일본 규슈 온천 관광
강추 히타 고급 별장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269,000
출발일 7/8,10,17
(◆ 7/18~8/25 성수기,주말요금 별도 문의)
※출발 가능한 인원 : 최소 5명, 최대 15명
※불포함 사항 : 선내식사 3식, 국내수송, 유류할증료
ALL포함!!
실속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야마가세 별장 온천 즐기기 4일 36 9,000 출발일 : 7/10,7/17
품격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전통료칸 야마가세 온천 즐기기 4일 499,000
품격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텐보스 4일 569,000
항공 규슈, 유후인, 벳부, 히타, 아소 +전통료칸 야마가세 온천 즐기기 3일 689,000

오사카&와카야마 항공으로 떠나는 일본 제일의 상업도시 오사카&아름다운 태평양과 환상적인 온천이 어울어진 와카야마!!
품격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동굴온천 4일 출발일 7/18 ALL포함 899,000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필리핀여행
7월 25일부터 무안(=>)마닐라 직항,(매주목,일요일 출발)
마닐라 3박4일(마팍따발사88온천) 준특급 778,000~ 특급 858,000~
특전 : 따가이따이 전망대, 스타벅스 음료, 발사투에[줄낚시, 스노클링,발사이용,바비큐], 88핫스프링, 특식1회,디스커버리투어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108,800), 기사&가이드팁(30$)
마닐라, 따가이따이, 팍상한폭포 3박 4일 준특급 799,000~ 특급 849,000~
특전 : 마닐라야간시내관광(맥주1병증), 열대과일시식특식1회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108,800), 기사&가이드팁(30$)
[Healing Manila]마닐라, 바탕가스 4박 5일 1,099,000~
특전 : 이일랜드호핑투어, 따가이따이관광, 오일맛사지1시간, 열대과일 시식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108,800), 기사&가이드팁(40$)
마닐라/보홀 4박 5일 준특급 1,149,000~ 특급 1,239,000~
특전 : 바라카삭호핑투어, 맛사지, 마닐라야간관광(맥주1병 증)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108,800), 기사&가이드팁(40$)
요란하지 않고 때묻지 않은.. 라오스 3박 5일 909,000~ 4박 6일 1,129,000~
불포함 : 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팁, 카약킹사공팁,전신맛사지팁
인도양의 아름다운 눈물이라 불리는 미지의 섬!! 스리랑카 3박 6일 1,960,000
불포함 : 유류할증료, 여행지 카메라입장료(1~2$)

무안공항 출발 베트남 전세기
7/20,7/24,7/28,8/01,8/05,8/09
관광형 다낭+호이안+후에성 1,099,000~ 불포함 : 유류세(140,000원), 기사/가이드 팁
휴양형 다낭+호이안 (아일랜드호핑투어 +스노쿨링) 특급 1,149,000~ 초특급 1,299,000~ 불포함 : 유류세(140,000원), 기사/가이드 팁
골프 몽고메리C.C + 다낭C.C (주중기준) 특급 1,449,000~ 초특급 1,599,000~ 불포함 : 유류세(140,000원), 기사/가이드 팁, 주말&공휴일 추가요금, 클럽식, 캐디팁
7/27,30,8/2,5 [단 4회!!] 무안–마카오/홍콩 4일 899,000~ 무안–마카오/홍콩/심천 4일 949,000~ 무안–마카오 4일 1,099,0000~
8/7,10,14,17 [단 4회!!] 무안–세부 4일 899,000~ 무안–세부 5일 999,000~
8/1일 단, 1회 무안–몽골 울란바토르 3박 5일 직항 1,599,000 불포함 : 유류할증료(₩82,900), 비자피(₩40,000)

국내여행/섬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26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석식, 유류할증료(₩22,000)
선박 목포–제주도 2박3일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편도) 33,000 ※광주출발 목포항 도착 셔틀버스포함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188,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48,000~ 포함사항 : ALL포함, 장급(합숙기준)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